

Korean personal dinning tables

soban

小盤



Korean personal dining tables

soban
小盤



Lacquer Table with Single Leg and Shell-shaped Ornament
H. 72.5cm, L. 21.2cm, 18th-19th century, The Art Museum

Oriental Culture and Design Center

목차

들어가는 말

1. 소반과의 일상

- 1.1 일상 日常
- 1.2 예절 禮節
- 1.3 품격 品格
- 1.4 존경 尊敬
- 1.5 의례 儀禮

2. 소반과의 나들이

- 2.1 유목적 생활도구
- 2.2 풍류 風流
- 2.3 친교 親交

3. 소반의 자태

- 3.1 결
- 3.2 색 色
- 3.2 선 線
- 3.3 형 形
- 3.4 짜임 構造

4. 소반의 재해석

- 4.1 클래슨 고이비스토 루네
- 4.2 최병훈
- 4.3 다니엘 리베스킨트
- 4.4 페르난도, 움베르토 캄파냐
- 4.5 승효상
- 4.6 하지훈
- 4.7 카림라시드
- 4.8 최경란
- 4.9 쿠로가와 마사유키
- 4.10 장윤규

참조

Contents

Prologue

1. Daily life with soban

- 1.1 daily life
- 1.2 manner
- 1.3 respect
- 1.4 symbol of status
- 1.5 rite of passage

2. User-Oriented Design soban

- 2.1 nomadic furniture, soban
- 2.2 enjoy the nature with soban
- 2.3 friendship with soban

3. Soba aesthetics

- 3.1 texture
- 3.2 color
- 3.2 line
- 3.3 shape
- 3.4 structure

4. 소반의 재해석

- 4.1 Claesson Koivisto Rune
- 4.2 Byung Hoon Choi
- 4.3 Daniel Libeskind
- 4.4 Fernando & Humberto Compana
- 4.5 H-Sang Seung
- 4.6 Ji Hoon Ha
- 4.7 Karim Rashid
- 4.8 Kyung Ran Choi
- 4.9 Kurogawa Masayuki
- 4.10 Yoon Gyu Jang

reference

들어가는 말

소반(小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식기를 받치는 좌식 식탁의 총칭이다. 특히 좌식생활을 하는 우리의 주거환경에 맞추어 발달한 식탁인 동시에 음식을 그릇에 담아 나르는 운반 기능을 겸한 생활용구이다.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했던 우리의 공간 문화와 마찬가지로 소반이 놓이는 곳이 곧 식당이며 접객공간이었다.

오늘날 서구화된 주거구조의 도입과 함께 우리의 생활은 한식과 양식이 혼용된 주거문화로 점차 변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입좌식의 생활문화로 인하여 서구의 생활가구와 전통 좌식가구가 함께 쓰이게 되었고, 독특한 생활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쓰이고 있다.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과 생활습관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변화를 꾀한 우리의 소반. 소반을 통해 우리는 전통디자인이 지닌 고유한 생활문화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던디자인의 홍수 속에서 한국적 감수성을 기초로 한국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통 소반과 함께 세계적인 10인의 디자이너가 현대생활양식에 맞게 소반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함께 담고 있다. 이 의미있는 움직임이 파장을 이루어 한국전통문화에 기반한 디자인이 세계인들의 생활문화 속에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 소장

최경란

prologue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he material and the form of soban show the humble Korean aesthetics very well. The upper board that plainly reveals the beautiful wood patterns and the legs that mimic those of animals and the simple lines and faces with minimal decorations all exude simple and honest natural aesthetics. That it used the light woods for the convenience of women who would carry it around also becomes its unique feature.

This 'soban exhibition' is a chance to show various re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soban's meaning and aesthetics through modern eyes of ten artists worldwide.

Although the scale and customs of our life have changed by time, soban that contains the ideas and the life of the past still holds an important place in our everyday design.

We expect that this exhibition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aesthetic superiority and importance of soban in our everyday culture.

Head of Oriental Culture and Design Center

Kyung Ran Choi



1. 소반과의 일상

1.1 일상 日常

1.2 예절 禮節

1.3 품격 品格

1.4 존경 尊敬

1.5 의례 儀禮

1. Daily life with soban

1.1 daily life

1.2 manner

1.3 respect

1.4 symbol of status

1.5 rite of passage

日常 daily life

조선시대는 왕족,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 귀천에 따른 신분의 차이, 그리고 나이, 남녀의 구별 등 유교적 가치관이 얹혀 일상사 모든 것에 대한 규범과 질서가 매우 엄격하였다. 이러한 신분질서는 주거문화에도 깊이 반영되어 성별과 계급에 따라 생활공간을 엄격히 분리하여 지냈고 각자의 지위에 맞는 예절과 매너를 익혔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궁집, 경기도 남양주,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Gung jip, Traditional Royal family's house in Namyangju



서백당(書百堂), 양동마을, 경북 안동
Seobaekdang, Yangdong village in Andong



조선시대에는 남녀의 생활공간이 엄격히 구분되었기 때문에 소반을 여러 개 두고 사용하였다. 소반을 이용해 부엌에서 안채로, 부엌에서 사랑채로 음식을 날랐다.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 여성의 공간인 안채가 분리된 전통생활공간이 그대로 그려진 김홍도의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에는 남자주인과 그의 손님들을 위해 소반을 들고 사랑채를 향하는 여인을 볼 수 있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김홍도 작, 1801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Landscape, Kim Hong-do, 1801, Samsung Museum Leeum

禮節 Manner

소반은 식사를 차려 나르고 받치는 용도로 쓰였던 일상적인 도구였다. 한국의 전통식사문화는 한 사람에 소반 하나를 두는 독상차림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나의 그릇에 반드시 한 가지 반찬만을 담아야 했고, 하나의 소반에 한 사람 몫의 음식만을 담아 날랐다. 식사를 할 때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른에게 상을 먼저 올리고, 먼저 수저를 들도록 기다렸다.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소반에 음식을 먹으며 그 속에서 예를 배웠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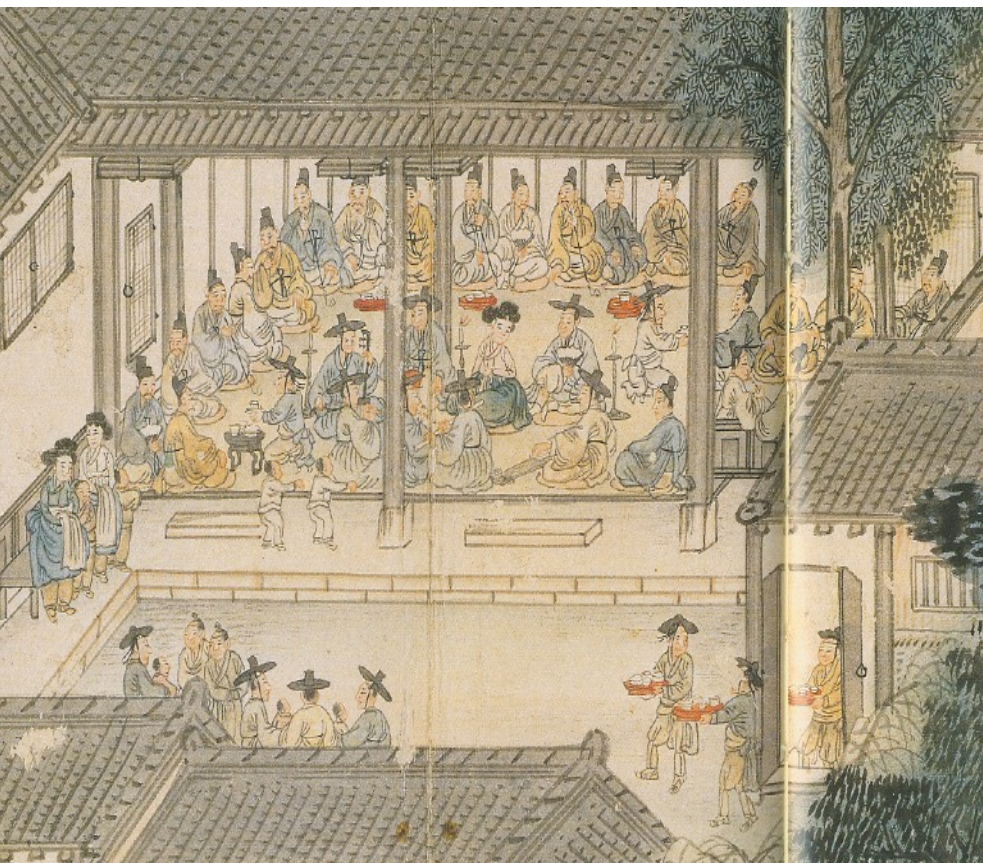
나주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Naju Table with tiger legged,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尊敬

respect

양반들은 집을 방문하는 객의 품격에 맞추어 반찬의 가짓수와 소반을 달리하였다. 음식을 대접하며 상대에 대한 존경도 함께 담아 올린 것이다. 손님에 따라 상을 다르게 올리기 위하여, **손님이 오면 사랑채에 노비를 보내 동정을 살피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양반택의 잔치장면을 묘사한 수갑계첩(壽甲契帖)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사랑채 대청에 둘러앉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소반을 나르는 하인들의 모습이 분주하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수갑계첩(壽甲契帖) 중 부분. 작자미상, 1814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Gathering of the Middle Class Literati, Anonymous, 1814, National Museum of Korea

品格 symbol of status

여러모로 쓰임새가 요긴했던 소반은 때론 가문의 지위를 짐작하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서민들은 가족수에 맞추어 갖추었던 밥상이지만, 손님이 많은 가문은 수십개씩 소반을 갖추어야 했다. 강릉 선교장(江陵船橋莊)에는 100명을 대접할 소반과 반상이 있었다고 한다. 종가(宗家)인 안동의 양진당(養眞堂) 안채 처마 아래에도 수많은 소반이 걸려 있었는데, 손님들이 자주 찾는 명문가임을 알 수 있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양진당 (養眞堂) 안채 전경, 하회마을, 경북 안동
Yangjindang , Hahoe village in Andong





소반은 아흔아홉간 양반집에서도 허름한 초가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었다. 하지만, 계층에 따라 그 격을 달리한 것이 또한 소반이다. 궁중에서 쓰는 쥬반(闕盤)은 화려한 색과 문양으로 치장하였고, 민가의 소반은 단순하며 투박하였다. 고위관리들의 연회를 그린 경수연도(慶壽宴圖)에는 붉은 빛깔에 곡선으로 멋을 낸 주칠원반이 있고, 김홍도의 설후야연(雪後夜宴) 속 야외에서 한때를 즐기는 선비와 김득신의 투전도(鬪錢圖) 속 투전놀이를 하는 중인 옆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던 호족반이 있다. 김홍도의 주막 속 투박한 **사각반**은 허겁지겁 한끼를 달래는 장돌뱅이의 누추한 차림새에 제격이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시계방향으로

경수연도(慶壽宴圖) 중 부분, 작자미상, 1655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Banquet of the Elder Officials, Anonymous, 1655, Seoul Museum of History

단원풍속도첩(檀園風俗圖帖) 중 주막 (酒幕) 부분, 김홍도 작, 18세기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A Wayside Tavern, Kim Hong-do, 18C, National Museum of Korea

투전도(鬪錢圖) 중 부분, 김득신 작, 18세기 후반, 간송미술관소장 / Gambling, Kim Deuk-sin, 18c, Gansong Art Museum

8폭 풍속도병(八幅風俗圖屏) 중 설후야연(雪後夜宴), 김홍도 작,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 Folding screen with genre screen of four season, Kim, Hong-do, 18c, Musee Guimet of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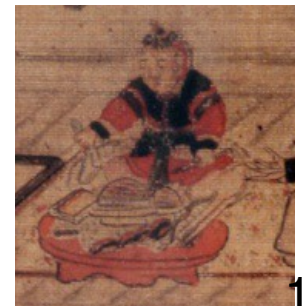
儀禮

rite of passage

일생을 지내며 거치게 되는 통과 의례(通過儀禮)는 그 의미만큼이나 그 규범과 절차도 엄격하였다. 의례복과 기물들은 물론 그릇과 그에 담기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조화를 중시하였고 그에 걸 맞는 소반을 사용하였다.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돌상으로는 색과 문양으로 멋을 낸 원반을 주로 사용하였다. 김홍도의 초도호연(初度弧筵)속 아기 앞에도 붉은 원반이 놓여있다. 아기 머리에 씌어진 굴레와 가슴에 둘러감은 붉은 띠는 장수를 의미한다. 가족끼리 대청에 모여 치르는 조촐한 잔치이지만, 소반과 아기옷의 빛깔이 더없이 화려하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기산풍속화첩(箕山風俗畫帖) 중 신부연석(新婦宴席), 김준근, 19세기말, 개인소장
A bride's seat in a banquet hall, Kim Jun-kun, 19c

입는 순서를 올바르게 하고 그에 맞는 자세와 몸가짐을 갖추어야 비로소 그 맵시가 살아나는 한복과 같이 의례공간과 도구들도 제 위치와 격식을 갖추어야 했다. 평소에는 단아한 의상을 즐겼지만, 명절과 혼례에는 화사하고 밝은 예복을 입었고, 그에 맞는 소품과 음식을 갖추었다.

기산풍속화첩(箕山風俗畫帖)의 신부연석(新婦宴席)을 보면 병풍을 둘러쳐 마련한 공간에 갓 시집온 신부가 시댁에서 '큰상'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부는 황의홍상(黃衣紅裳)과 장신구로 멋을 내었고, 소반 위 형형색색의 음식들이 백자에 담겨있다. 공간과 사람, 사물이 조화를 이룬 격조 높은 우리네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2. 소반과의 나들이

2.1 유목적 생활도구

2.2 풍류 風流

2.3 친교 親交

2. User-Oriented Design soban

2.1 nomadic furniture, soban

2.2 enjoy the nature with soban

2.3 friendship with soban



유목적 생활도구 nomadic furniture

한옥은 빈 공간에 이불이 놓이는 곳이 바로 침실이 되며, 서안을 두면 공부방이 되었다. 이처럼 한 공간에서 여러 행위가 이루어지는 생활문화를 뒷받침하는 가구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반이다.

김홍도의 후원유연(後園游宴)을 보면 연못과 괴석, 나무로 가꾸어진 후원에서 한 때를 즐기고 있는 양반이 보인다. 울타리 밖에는 아낙과 긴 머리를 한 처녀가 소반을 받쳐 들고 후원으로 향한다. 풍성한 형태미를 보이는 치마와 호족반의 유연한 곡선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답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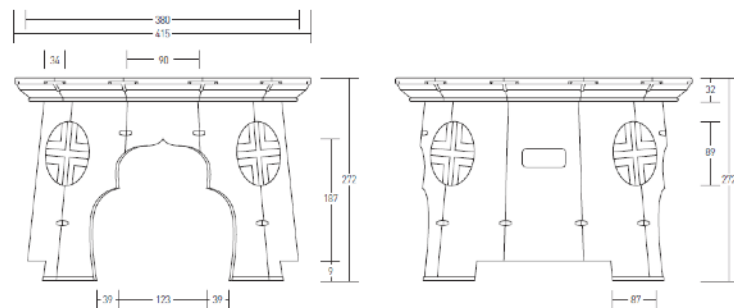
8폭 풍속도병(八幅風俗圖屏) 중 후원유연(後園游宴), 김홍도 작, 18세기, 프랑스기메박물관소장
Folding screen with genre screen of four season, Kim, Hong-do, 18c, Musee Guimet of France



공고상(公故床),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Official's lunch Tabl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사용자의 일과와 거처에 따라 장소를 달리한 소반은 어느 공간에 놓이더라도 조화롭다. 또한 여성의 품위와 자태에도 어울리는 우아함을 지니고 있다. 관청이나 대궐에서 숙식하는 관리들에게 아녀자들이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고상(公故床)은 머리에 엮었을 때, 앞이 보이도록 구멍과 창을 뚫어 나르는 이를 배려하였다. 투창(透窓)의 우아한 곡선은 머리에 엮었을 때 안정감을 부여하며, 내려놓았을 때에는 장식적 효과를 더한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목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Wooden Tray,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떡이나 과일과 같이 적은 양의 음식을 나를 때에는 목반(木盤)을 썼다. 손님이 많을 때에는 음식을 목반에 차곡차곡 담아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꺼내어 쓰기도 하였다. 들기 가볍고 쉽게 포개지는 형태로 되어있어 여러 개를 동시에 보관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반이다. 음식을 담을 때는 목판에 유지(油紙)를 깔고 정갈하게 보자기를 덮어두기도 하였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風流

enjoy the nature with soban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자연과의 화합을 중시한 조선시대 양반들은 자연 속에 정자를 짓거나 생활공간 속에 연못을 두는 등 자연을 늘 가까이 하였다. 또한 풍광이 좋은 산이나 강변, 정원 등에 소반으로 음식을 운반하여 풍류를 즐겼다. 눈 내린 설경을 즐기며 야외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묘사한 **김홍도의 설후야연(雪後夜宴)** 속에도 자리 한 켠에 찬을 올린 호족반이 놓여 있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8폭 풍속도병(八幅風俗圖屏) 중 설후야연(雪後夜宴), 김홍도 작,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Folding screen with genre screen of four season, Kim, Hong-do, 18c, Musee Guimet of France

親交

friendship with soban

뛰어난 산수와 풍광은 많은 선비들이 이용할수록 유명해지며, 아무리 잘 지어진 정자도 명망있는 사람들이 다녀가지 않으면 명성을 얻지 못하였다. 좋은 벗과 명인들이 함께 나누는 것을 중시한 선비들은 풍광이 좋은 곳에 모여들어 담소를 나누며, 풍류를 즐겼다. 정수영의 백사회야유도(白社會野遊圖)는 묵객들이 시회를 만들어 야유회를 갖고 이를 기념하여 그린 것이다. 도포차림의 선비들이 폭포를 배경으로 둘러앉아 있고, 그 앞에 소반이 놓여 있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백사회야유도(白社會野遊圖), 정수영 작, 개인소장
??, Jung Su-yeong



3. 소반의 자태

3.1 결

3.2 색 色

3.2 선 線

3.3 형 形

3.4 짜임 構造

3. Soban aesthetics

3.1 texture

3.2 color

3.2 line

3.3 shape

3.4 structure

결 texture

우리의 목가구는 두껍게 칠하지 않고 자연스런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려두었다. 나무마다 그 결을 살려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다. 쓰는 이의 손에 길들여져 윤기가 더해지고, 체취와 취향이 스며든다. 누구나 운반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소반에도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였다. 간결한 면으로 이루어낸 소박한 구조이지만 부드러운 촉감은 어느 장식보다 중후하고 아름다운 깊이를 느끼게 한다. 소반의 소재로는 주로 괴목,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을 사용하였는데, 손이 많이 스치는 상판은 나무결이 고우면서도 강성이 있는 은행나무를 으뜸으로 보았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35



36

色 Color



우리의 음식문화는 탕, 국과 같이 물기가 많은 음식이 빠지지 않았기에 소반은 이에 적합하도록 옷칠을 하였다. 안료의 성분과 두께에 따라 황칠(黃漆), 주칠(朱漆), 흑칠(黑漆), 생칠(生漆) 등 다채로운 빛을 내었다. 궁중에서는 화려한 황칠, 주칠, 흑칠을 한 소반을 사용하였고, 일반서민들은 생칠이나 기름을 먹인 질박한 소반을 썼다. 색을 쓰되 그 결을 살려 자연의 맛을 유지하고, 더 이상 견어낼 것이 없는 간소한 형태로 만들었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주칠원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Red Lacquered Round Table, National Museum of Korea.



흑칠원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Black Lacquered Round Table, National Museum of Korea.



일주반(一柱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Single-Legged Tabl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죽절반(竹節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Bamboo-Legged Tabl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線 line

그다지 클 것도 호사스러운 것도 없는 한옥의 공간구성을 고려한 한국의 가구는 공간에 스며들어 담담한 분위기를 이루어 낸다. 그 속에 놓이는 작은 상 하나에도 미의 질서를 부여해 기품을 더하였다.

통영반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죽절반(竹節盤)의 다리는 선비의 정신세계를 담아 시원스레 뻗은 모습이다. 하나의 다리로 중심을 받치는 일주반(一株盤)은 두 가닥의 선을 꼬아 전체적으로 직선의미를 보여주는 가운데 곡선이 파고들어 시각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호족반(虎足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Tiger-Legged Tabl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정갈하고 세련된 선으로 사물의 특징을 표현하여 유쾌함을 더한 소반의 다리에는 진실한 구조미가 숨겨져 있다. 개의 다리모양을 한 구족반(狗足盤)은 다리가 밖으로 둥글게 벌어지며 발끝이 안을 향한다. 호랑이 다리모양을 한 호족반(虎足盤)은 유연한 S자형을 이루며 발끝을 살짝 내밀었다. 묵직한 상판과 음식이 차려져도 부담스럽지 않도록 절묘한 비례감을 지닌 곡선이다. 조선 후기 곁에서 쓰이던 원형소반이 일반에 널리 퍼지면서 그에 어울리는 유기적인 곡선은 더욱 세련되어지고 균형미를 갖추게 되었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形 shape

소반의 상판은 빈번하게 쓰이고 또 견고해야 되는 까닭에 가식이 없는 순수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들기 쉽게 어깨 너비를 넘지 않으며 가장자리가 자연스럽게 도드라져(번죽) 양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올려진 그릇이 떨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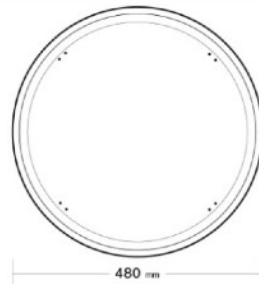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종류로는 상판이 네모난 사각반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둥근 원반이 있다. **원을 적정한 비례로 나누어 모를 접은** 6각, 8각, 12각의 다각반이 있는가 하면, 연꽃잎의 모양을 한 연엽반, 반달의 형태를 지닌 반월반도 있다.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간명하고도 조출한 비례감으로 쓰임새에 적절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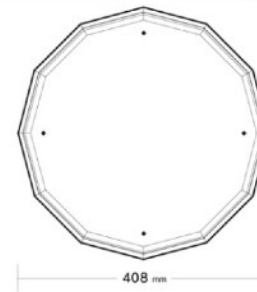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사각 구족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Square Table with Dog legs,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원형 구족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Round Table with Dog legs,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2각 일주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Single-Legged Tabl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화형 호족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Lotus Table with tiger legs,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形 Patterns

선비들의 절제와 단아함의 정신을 닮아 소박하고 자연스런 소반은 화려한 장식보다는 간결한 문양을 주로 새겼다. 흔히 길상문자(吉祥文字)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쓰는 이의 행복과 영원을 기원하는 바램을 담아 주로 '卍'자와 '亞'자를 새겼다. 길상문자는 주로 판각(板脚)의 중앙에 투각 되는데, 장인의 미감에 따라 때로는 반듯하게 하고 때로는 글자의 모양을 연결하여 새로운 문양으로 창조되기도 한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풍혈반(風穴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Wind Hole Tabl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해주반,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Sea Table, Sungshin Woman's University Museum

만자문(卍字文), 卍 Pattern



아자문(亞字文), 亞 Pattern





별도의 다리없이 판각을 세우는 해주반은 시각적인 부피감을 줄이기 위하여 화려한 문양을 투각하였다. 장식적인 문양에는 주로 초화문이 사용되었는데 당초문(唐草紋)과 인동문(忍冬紋), 국화문(菊花紋) 등이 많이 새겨졌다. 정교하게 새겨진 초화문은 단순함과 화려함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또한 각부의 적절한 비례로 상판과 다리 사이에서 힘을 분할하는 기능도 겸한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운각과 판각에 당초문이 새겨진 해주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Heaju Table with arabesque patterns,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원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Round Tabl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사용하는 이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상문(寶相紋)을 새기기도 하였는데, 보상문이란 보주(寶珠), 즉 여의주(如意珠)의 형태를 말한다. 동양에서는 '모든 일에 기쁨을 준다'는 의미를 담겨 있다. 보주의 형태를 단순하게 투각하는 경우도 있고 음각으로 조각하거나 양각으로 조각하는 경우, 그리고 당초문을 곁들여 화려하게 조각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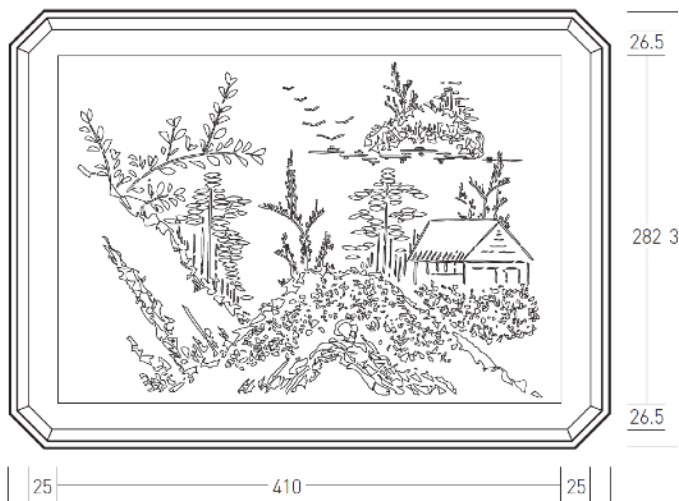
원형주칠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Red Lacquered Round Table, National Museum of Korea.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나전으로 유명한 통영에서는 소반의 상판에 자개로 화려하게 문양을 넣기도 하였다. 진주의 영롱함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은 나전반은 그 자태만큼이나 귀한 물건이었다. 패턴보다는 주로 자연의 묘사에 중점을 두어 십장생(十長生)과 산수(山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얇게 갈아낸 패각을 섬세하게 오려내어 입힌 상판이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놓은 듯 하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상판에 나전이 새겨진 통영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Tongyoun Table with Mother of Pearl Ornamen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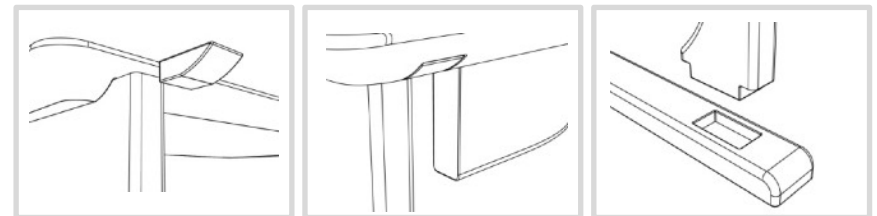
짜임 structure

해주반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장방형의 상판에 좌우 양측으로 판각(板刻)을 세운 것이 기본형식이다. 판각을 상판에 주먹장끼움으로 맞추어 넣고, 운각과 판각은 대나무못으로 고정하였다. 별도의 다리를 만들지 않고, 다양한 문양으로 판각을 투각하는 것이 해주반의 특징이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해주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Heaju Tabl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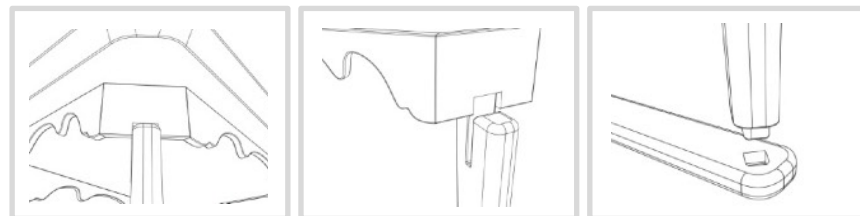




나주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Naju Tabl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나주반은 잡다한 장식이나 화려한 조각이 없다. 대신 견고하고 안정감 있는 짜임과 투명하면서도 붉게 피어오르는 부드러운 광택이 특징이다. 상판은 느티나무를 통으로 조각한 것이다. 다리와 상판은 맞짜임으로 연결하여 상판에서 대나무못으로 보강하였다. 판이 휘거나 트는 경우가 거의 없이 매우 실용적인 소반이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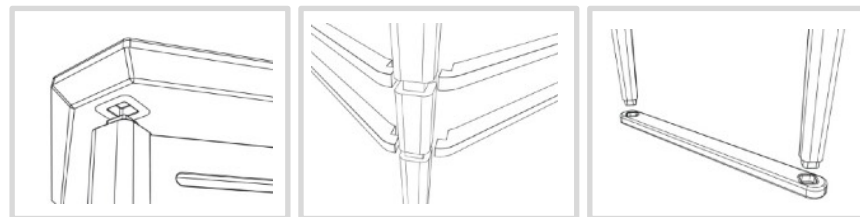
상판 + 다리 : 맞짜임 | 다리 + 운각 : 턱짜임 | 다리 + 족대 : 장부짜임



통영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Tongyoung Tabl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통영반은 언뜻 보면 나주반과 비슷하지만, 상판을 통으로 하지 않고, 가장자리를 다른 목재로 만든 후 상판의 각을 따라 턱짜임으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부짜임으로 상판에 홈을 파 다리를 직접 결합하고 중앙에 다시 네 다리를 연결하여 구조미가 돋보인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천판 + 다리 : 장부짜임 | 다리 + 중대 : 턱짜임 | 다리 + 족대 : 장부짜임

4. 소반의 재해석

- 4.1 클래손 고이비스토 루네
- 4.2 최병훈
- 4.3 다니엘 리베스킨트
- 4.4 페르난도, 움베르토 캄파냐
- 4.5 승효상
- 4.6 하지훈
- 4.7 카림라시드
- 4.8 최경란
- 4.9 쿠로가와 마사유키
- 4.10 장윤규

4. 소반의 재해석

- 4.1 Claesson Koivisto Rune
- 4.2 Byung Hoon Choi
- 4.3 Daniel Libeskind
- 4.4 Fernando & Humberto Compana
- 4.5 H-Sang Seung
- 4.6 Ji Hoon Ha
- 4.7 Karim Rashid
- 4.8 Kyung Ran Choi
- 4.9 Kurogawa Masayuki
- 4.10 Yoon Gyu Jang



Oriental Culture & Design
Copyright © 2010 by OCDC All rights reserved



Claesson Koivisto Rune

클래슨
코이비스토 룬네

Sweden

1995 Founded the Claesson koivisto rune, Sweden
(Märten claesson+Eero koivisto+Ola rune)

1993-2000 Utmärkt Svensk Form

Excellent Swedish Design award

2008 Swedish Design Award, Sweden

2008 Plus house, Kit house for Arkitekturhus, Sweden

2008 W08, Task lamps, Wästberg, Sweden

2008 Moebius, Serviette ring, Skultuna, Sweden

now Claesson Koivisto Rune Studio

Concept

기능과 구조, 형태, 소재에 있어 소반은 더 이상 견어낼 것도 없는 순수함을 지녔다. 그들의 소반에도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 단순한 형태에 만드는 재료에 따라 재료의 진실성이 살아나도록 하여 재료 그 자체가 고유의 정서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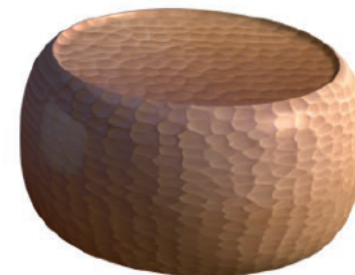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Märten Claesson Eero Koivisto Ola Rune
STARK MÖBLER 12 JUNE 2014



Traditionally glazed ceramics



Hammered metal



Byung Hoon Choi

최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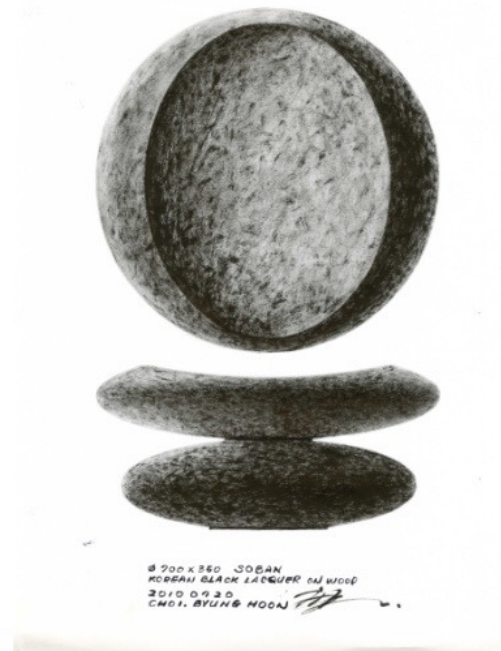
Korea

- 1974 Bachelor of Fine Art, Hongik University, Korea
- 1979 Master of Fine Art, Hongik University, Korea
- 2007 Grand Prize, 2007 Seoul Living Design Fair Award
- 2007 Director, Hongik University Museum
- Specialist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Korea
- 2008 The Chief of Administrator
- Chongju Int'l Craft Biennale, Korea
- now Dean & Professor of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Korea

Concept

최병훈은 눈에 보이는 행위나 현상이 아닌 소반에 담긴 정신세계에 집중한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쌓기 행위'를 통해 도(道)와 선(禪)에서 비롯된 숭고하고 단순한 형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태초의 순수에 도달하는 형(形)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소반의 실용의 세계 뿐 아니라 자기성찰의 시간과 부드러운 명상을 통해 무한한 고요함에 이르게 한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Daniel Libeskind

다니엘 리벤스킨트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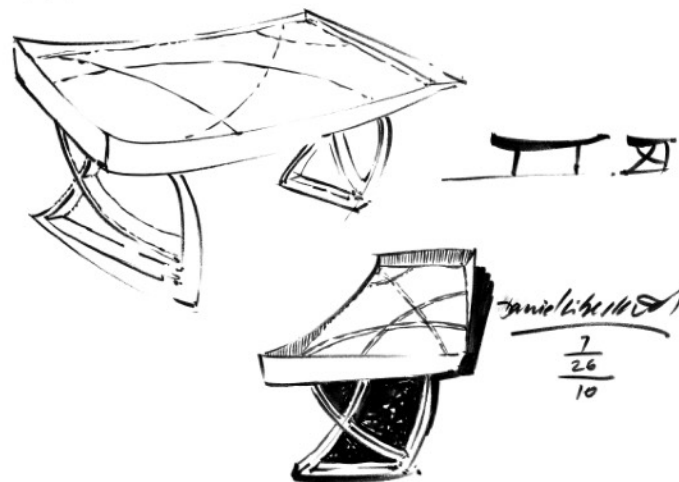
- 1970 Bachelor of Architecture, The Cooper Union School of Architecture, New York, USA
- 1972 Postgraduate degree, Essex University, London, UK
- 1989 Established studio Daniel Libeskind, Germany
- 1999 Jewish Museum Berlin, Berlin, Germany
- 2005 Memoria e Luce, 9/11 Memorial, Padua, Italy
- 2009 MGM Mirage's CityCenter, Retail and public space on the Las Vegas Strip, USA
- now President of Studio Daniel Libeskind (SDL), USA

Concept

과거의 흔적 그리고 해체라는 조형언어로 집약되는 리벤스킨트. 그는 우리의 기억과 맞닿아 있는 전통에 대한 흔적을 한복에 나타난 둥글려진 곡선과 버선코의 곡선이 이루어내는 아찔한 정교함으로 보았다. 순수단위인 곡선이 만나고, 나누어지며 만들어진 비례의 미는 부드러움과 조화로움이 공존하는 우리 미의 질서와 닮아있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SOBAN





Fernando & Humberto Campana

페르난도,
움베르토 캄파냐

Brazil

1977 Law at the University of São paulo, Brazil
(humberto)

1981 Bachelor's of architecture, São paulo
school of fine arts, Brazil (Fernando)

1999 George Nelson Design Interiors Awards,
Interiors Magazine, USA

2008 Designer of the year award, Design Miami show

Manufactured by international Co. as:
edra, alessi, moss gallery

Concept

소박하고 투박한 일상의 소반을 모던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였다. 입식생활패턴에 맞추어 높이를 높이고, 아래를 향한수록 넓어지는 다리로 안정감을 주었다. 쓰는 이의 손길에 따라 길들여지며 완성되는 소반과 같이 미완의 미가 느껴진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H-Sang Se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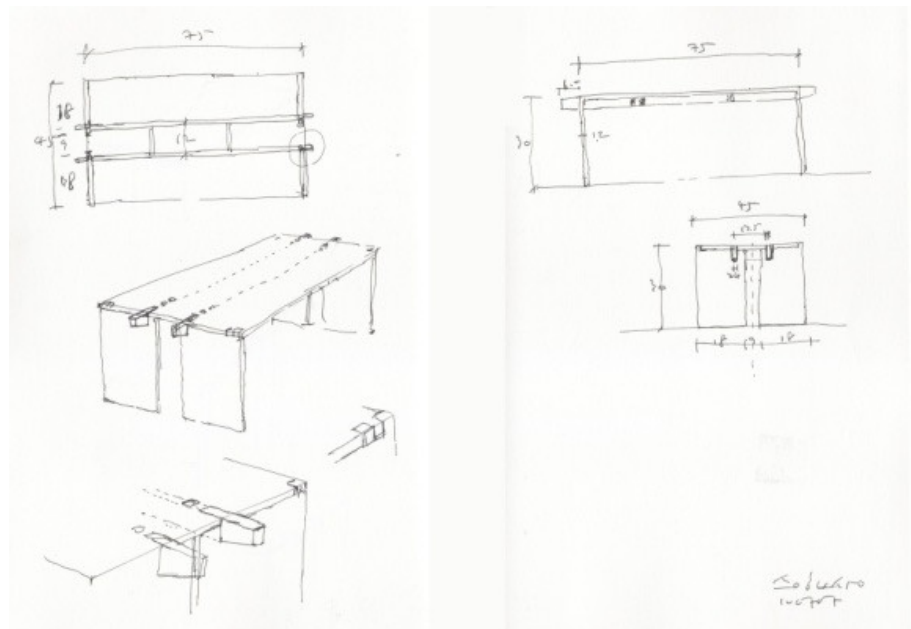
승효상
Korea

Bachelor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Honorary Fellow,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USA
2002 Artist of the Year,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2005 Commissioner of Korea Pavilion,
Venice Biennale, Venice, Italy
now President of IROJE architects & planners

Concept

승효상에게 한국적인 공간은 항상 비어있는 것이다. 거주인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가구의 이동으로 공간의 성격이 주어지고 사라진다. 이러한 불확정적 비율의 공간을 위해 그가 만든 소반은 그 자체로는 성격이 없이 공간 자체의 성격을 드러낸다. 부재를 통해 스스로의 생명을 지속하는 것이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Ji
Hoon
Ha

하지훈

Korea

Graduated from woodworking & furniture
department, Hong-ik University, Korea
2005, 2009 Grand recipient of Next generation
of design leader program by KIDP, Korea
2009 Awarded Young artist of the year
Korean ministry of culture, Korea
now Professor of Kaywon school of art & design,
Anyang, Korea

Concept

소반이 지닌 멋스러움은 그대로 살리되 기능적으로는 현대생활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하지훈 작품의 매력이다. 서구화 된 의자 문화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높이를 높이되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루미늄이라는 현대적 소재로 다리를 제작하여 구조적 결점을 보강하였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Kariim Rash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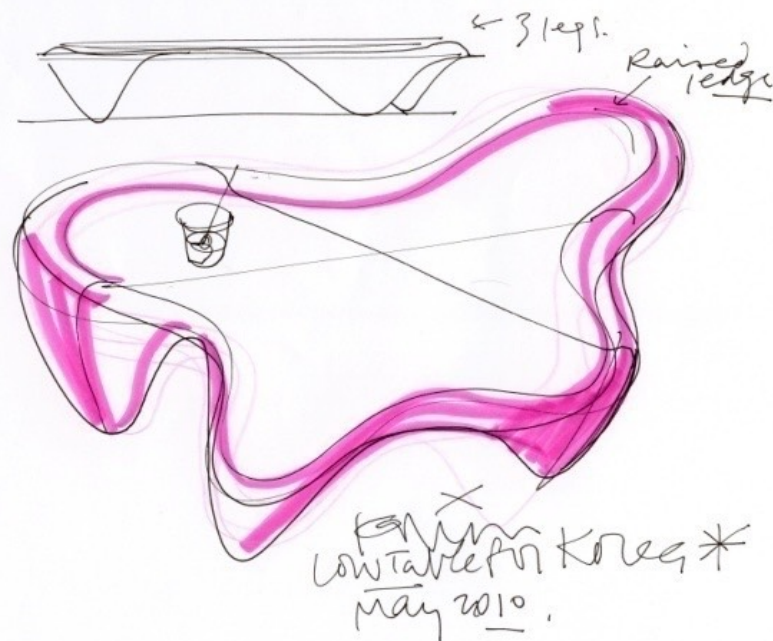
카림라시드
USA

1982 Bachelor in Industrial design,
carleton university, Ottawa, Canada
2005-2010 Red Dot distinction for high design quality
2009 GOOD DESIGN Award: iiamo Go Baby Bottle
2010 IF product design award: Artemide Cadmo Lamp
2010 Red Dot Communication Award: Paris Baguette Eau
2010 Red Dot Communication Award
: Aekyung Bubble Dishwashing Foam
now President of KARIM RASHID Inc.

Concept

공간을 초월하는 유목적 도구인 소반을 시간을 초월하여 멀티테스킹이 가능한 시간성으로 재해석하였다.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 같은 곡선은 현대인의 다양한 삶을 수용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Kyung
Ran
Choi**

최경란
Korea

Bachelor of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of Fine Ar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USA
2009 Planning committee,
Seoul Design Olympiad organization, Korea
2010 General director, Seoul Design Fair 2010, Korea
now Director, Oriental Culture & Design Center,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College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Concept

작은 상 하나에도 예의를 중시하였던 소반문화를 테이블보를 덮어 매너를 지키는 현대문화로 위트있게 재해석하였다. 사물을 엮는 것 만으로도 예를 갖춘 듯한 느낌을 자아내며, 단단한 세라믹을 이용하여 표현한 부드럽고 유연한 주름은 감각의 반전을 주는 요소이다. 장인의 손을 거쳐 하나씩 만들어지던 전통방식과 달리 복제를 통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백자 이외에도 표면에 채색이나 문양을 넣어 표정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Masayuki Kuroka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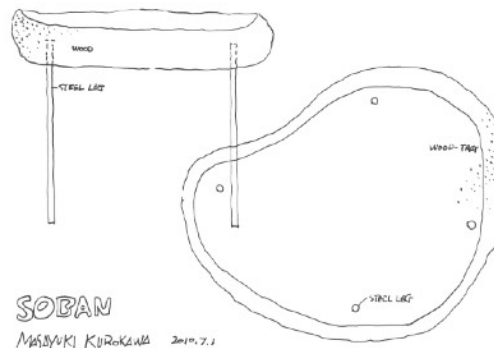
구로카와 마사유키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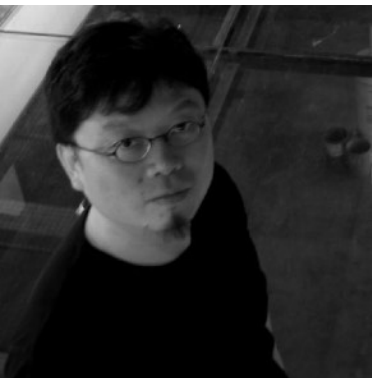
1961 Bachelor of Architecture, Nagoya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
1967 Master of Architecture, Waseda University, Japan
Doctor of Architecture, Waseda University, Japan
1967 Established Masayuki Kurokawa Architect & Associates, Japan
1998 Established BUTSUGAKU Research Institute, Japan
2007 Established K Corporation, Japan
Manufactured by International Co. as:
maruni, artemide, tolo, ricoh

Concept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리고 쓰는 이의 손에 길들여져 윤기와 체취가 스며드는 한국의 소반. 쿠로가와 마사유키는 이처럼 일상에서 벗과 같이 지내온 소반을 작은 아기고양이에 비유한다. 아기고양이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감촉을 담아 늘 살갑게 붙어서 안정감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반으로 만들었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Yoon
Gyoo
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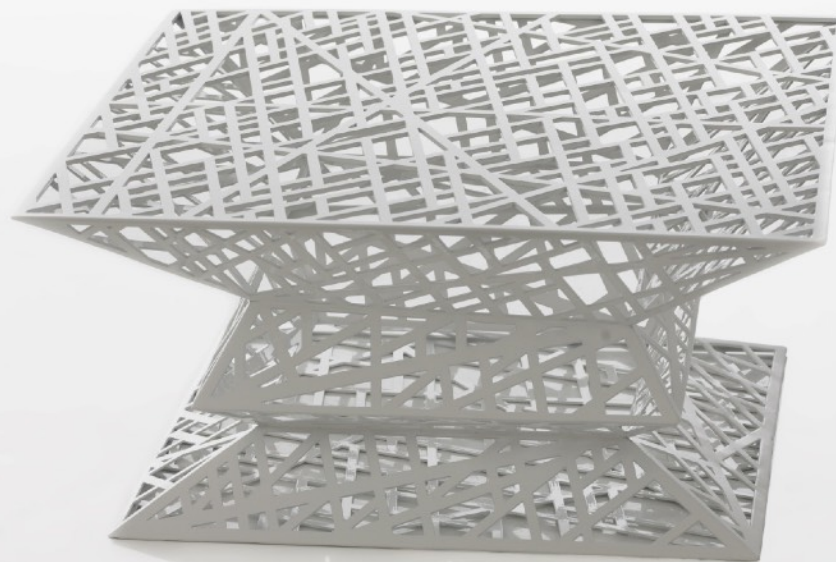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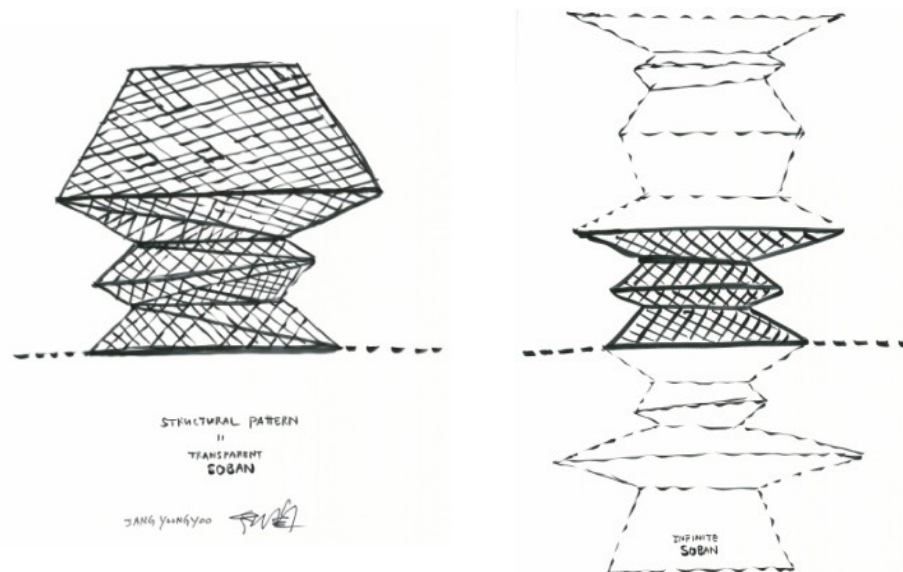
장윤규
Korea

1987 Bachelor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Master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Established UNSANGDONG Architects, Seoul, Korea
2005 Award in Asian Culture complex in GwangJu, Korea
2005 Award in Outdoor Amphitheater for Youth, Nodaeul Island
2006 Award in Competition for Extension of the City Hall, Seoul, Korea
now Professor, College of architecture,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Concept

입체적인 면접기에 의해서 소반의 상판과 다리의 구분을 없애고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 어휘와 재료로 결합된 통합체적인 가구로 재현하였다. 무한이 성장하고 쌓여진 형상의 반복을 통해 작은 용기지만 무한한 확장의 오브제임을 의미한하고 투명성을 갖는다. 이는 다양한 공간에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풍경의 틀로 자연스럽게 작용한다.

Soban (小盤) refers to every kind of small low table that supports various food containers for dining. It is a dining table developed especially for us who are accustomed to the floor-seated lifestyle and it also functions as a tray to put food and serve to the people.



국립문화재연구소(1997), 소반장 : 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2003), 민속유물이해!목가구,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자료집, 서울

국립민속박물관(2006), 소장품도록,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국립민속박물관(2007), 한민족역사문화도감,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자료집, 서울

국립중앙박물관(2009),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금복현(1985), 한국적 기법의 목각공예, 한림출판사, 서울

김상보(2006), 조선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서울

김성수(1997), 한국의 전통공예기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서울

김희수(2004), 목가구, 대원사, 서울

나선화(1994), 소반, 대원사, 서울

남경숙(2008), 한국전통가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서울

문화재관리국(1991), 소반장, 서울

민찬(2004), 소반 이야기, 다운샘, 서울

박영규(1982),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서울

배만실(2006), 소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서울

배만실(2006),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18,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서울

서울시립대학교(1995), 가마와 소반 : 교내 교수 기증품 및 소장품,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서울

서울역사박물관(2009), 옛 그림을 만나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도록, 서울

서울역사박물관(2002), 한국의 목가구,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손영학(2001), 한국인의 솜씨, 다할미미어, 서울

우리마당 터(2002), 민속학술자료총서259, 민속공예4, 우리마당 터, 서울

윤숙자(2002), (전통부엌과)우리살림, 질시루, 서울

이동주(1997),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시공사, 서울

이종석(1986),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서울

이재화(1982), 한국화자료1, 신도출판사, 서울

천천교(1996),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학교재, 서울

한국문화재 보급협회(1976), 한국 문화재 전집 : 목공예9, 다보문화, 서울

한복려(1999), 한국인의 밥상, 궁중음식연구원, 서울

사진협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한국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한국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한국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한국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Korea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eoul, Korea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Korea

Ewha Woman`s Uiniversity Museum, Seoul, Korea

Sungshin Woman`s Uiniversity Museum, Seoul, Korea

